

제1장

한탄강

(漢灘江)



송대소 수직적벽 주상절리

한탄강(漢灘江)

▶ 한탄강 개관



현무암과 화강암이 즐비한 한탄강

한탄강은 북한지역인 강원도 평강군의 추가령 구조곡 동쪽 산지에서 발원해 남서쪽으로 흘러 평강과 남한의 철원을 지나고 경기도 포천, 연천 등지를 흘러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합류한다. 지방 1급 하천인 한탄강은 강원도 평강의 발원지부터 연천의 임진강 합수점까지 총 길이가 약 140km이고, 남한지역만 약 80km를 흐른다. 한탄강은 ‘큰 여울의 강’이란 뜻으로 계곡이 깊고 여울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은 원래 은하수(漢)를 뜻하며 크다·많다·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이 폭발해 생긴 강으로 곳곳에 수직절벽과 협곡이 발달해 절경을 이루며 우리나라 어느 강보다도 변화무쌍하고 풍광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철원 한탄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정자연, 칠만암, 직탕폭포, 송대소, 고석정, 순담계곡 등지는 대부분 기암절벽이 자란 명승지이자 지질학적인 명소이다.

▶ 한탄강의 탄생



철원평야의 젖줄 한탄강

지금으로부터 27만 년 전 신생대 제4기에 추가령구조곡 내 평강 서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오리산(鴨山, 452m)에서 화산 폭발이 11차례나 일어났다.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은 북쪽 추가령 고개를 넘지 못하고 남쪽으로 흘러 15km 지점인 동송읍 화지리 부근에서 낮은 골짜기인 옛 한탄강 유로를 메우고 포천과 연천을 거쳐 임진강 하류 파주 울곡리까지 95km, 총면적 약 650km²(2억 평)을 뒤덮어 용암대지를 형성하였다. 그 후 용암대지에 비가 내려 한가운대를 침식해 깎아 내리거나, 기반암인 화강암이나 편마암과의 연약한 경계를 따라 활발하게 침식이 진행되어 새로운 유로가 만들어졌고 현재의 한탄강이 탄생하였다. 한탄강은 현무암 용암대지가 움푹 패여 형성되었기에 수직 절벽과 주상절리가 발달하

였고 평야 한가운데에서는 어디가 강인지 구분하기 힘들며, 철원평야의 커다란 배수
구 역할을 하고 있어 벼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한탄강 이름의 유래



철원도호부 옛 지도

‘한탄’이란 이름은 ‘대탄(大灘)’에서 유래한다. 大는 훈차하여 뜻을 따라 ‘한’으로,灘은 음차하여 ‘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철원도호부편에 “체천(砌川)의 근원이 철령인데 남쪽으로 흘러가서 경기 양주의 북쪽으로 들어가 대탄(大灘)이 된다.”라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호가 지은 『대동지지』 김화편에도 “末訖川西北二十七里詳楊州大灘江, 말흘천은 김화 서북 27

리에 있는데 양주 대탄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해동지도』, 『여지도』, 『광여도』 등에 대탄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도 대탄 즉 한여울이 옛 양주목 관할인 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와 전곡읍 전곡리 사이 한탄강에 존재하고 있다. 이 대탄강의 ‘大’자가 크다는 순수한 우리말의 ‘한’으로 한탄강이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하천을 조사하면서 한탄(漢灘)에 강(江)을 붙여서 한탄강이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 철원의 아픈 역사가 깃든 강



철원 북방 DMZ 안 태봉국도성 터

‘큰 여울’이나 ‘은하수 여울’ 같은 아름다운 이름의 한탄강이 종종 통한(痛恨)의 ‘恨難江’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철원지역에 전하는 가슴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다. 태봉(泰封)의 궁예왕이 후백제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던 길에 한탄강가에 마치 좀먹은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검은 돌들을 보고는 “아하, 내 운명이 다했구나.” 하고 한탄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궁예왕이 왕건에 쫓기다가 이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해서 한탄강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다 한탄강에 막혀 건너지 못하고 한탄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또 치열한 전쟁터였던 철원에서 목숨을

많은 젊은 병사들의 피가 한탄강을 붉게 물들였다는 슬픈 내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동족상잔의 아픔과 한을 안고 있기에 한탄(恨歎)강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는 모두 철원의 슬픈 역사적 배경에 따른 추측이다.

▶ 구간마다 다른 한탄강의 옛 이름



한탄강 고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 등에서는 한탄강(漢灘江)이란 명칭을 찾아볼 수 없고 구간별로 지역별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전천(箭川), 말흘천(末訖川), 체천(砌川), 마흘천(磨訖川), 대탄강(大灘江) 등 전혀 다른 하천 명이 사용되고 있다. 전천(箭川)은 한탄강 최상류의 Y자형 지천 가운데 오른쪽 지천을 지칭한다. 전천의 우리말인 살내는 물살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흘천(末訖川)은 왼쪽의

광탄수, 오른쪽 전천이 만나는 낭하리 지점에서 김화의 말흘평(末訖坪)까지 흐르는 하천 명이다. 철원지역 한탄강 이름인 체천(砌川)은 화강(花江 남대천)과 만나는 도창리(정연리) 당구미에서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의 화적연(벚가리소)까지 흐르는 하천 명으로 강 양옆의 현무암 수직절벽과 주상절리가 섬돌과 같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마흘천(磨訖川)은 화적연에서 영평천이 합류하는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아우라지까지를 말한다. 대탄강(大灘江)은 신답리 아우라지에서 임진강과 합류하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까지 흐르는 하천 명이다.

▶ 지질학의 보고(寶庫) 한탄강



고석정 아래쪽 협곡지역

한탄강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으로 선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의 다양한 지질 지층을 볼 수 있다. 주상절리가 곳곳에 분포해 관광지로서 뛰어난 매력을 갖추고 있고, 지질학적인 학술가치는 물론 자연과학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한탄강은 신생대 지층을 밟으면서 절벽 아래로 내려와 수억 년 전 중생대 암석을 만져볼 수 있는 곳이다. 절벽의 맨 아래 강바닥에는 굵은 자갈층이 깔려 있는데 이는 용암이 흘러오기 전의 옛 한탄강 바닥이다. 그 위에 강물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 베개용

암이 나타나고 현무암이 판상절리와 주상절리 형태로 차곡차곡 쌓였다. 절벽 형태는 주변 암석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현무암 사이로 강이 흐르면 대교천처럼 가파른 협곡이 되지만, 강이 화강암 등 기반암과 현무암 사이를 흐르면 현무암 쪽에는 가파른 절벽이 화강암 쪽에는 완경사가 만들어진다.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가장 젊은 용암대지 위에 만들어진 가장 젊은 강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1살도 채 안된 유년기 지층이다.

▶ 한탄강 주상절리(柱狀節理)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주상절리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굳어질 때는 부피가 수축해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고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 굽은 틈 즉 절리가 생긴다. 주상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나 삼각형의 긴 기둥 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한다. 한탄강 현무암이 물에 의해 침식되는 과정에서 절단면을 따라 바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직절벽이 만들어졌다. 중부지방에서 현무암 침식이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고, 서리 작용이 강해 바위 틈새로 유입된 우수가 동결.팽창하면서 바위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철원지역은 산지지형으로 강수량이 일시에 집중되어 한탄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강물의 침식에너지가 평소의 몇 배는 커진다. 이러한 환경조건은 현무암층을 빠른 속도로 침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직절벽과 굽이치는 물길 때문에 한탄강이 스릴 넘치는 전국 최고의 래프팅 명소로 각광받게 되었다.

▶ 한탄강의 대표적인 지류



한탄강의 대표적인 지류 화강

한탄강의 대표적인 지류는 남대천(南大川)·대교천(大橋川)·영평천(永平川)·차탄천(車灘川) 등이다. 김화읍 중심부를 흐르는 남대천(南大川)은 2009년 ‘화강(花江)’이라는 옛 이름을 되찾아 주민들 및 관광객 휴식처로서 명성을 올리고 있다. 화강은 길이가 약 40km로 김화군 금성면 어천리 수리봉(642m)에서 발원해 김화읍내 암정리·생창리·학사리·청양리·도창리를 거쳐 한탄강으로 유입된다. 대교천(大橋川)은 철원

군과 경기도 포천시 경계에 있는 한탄강 지천으로 고석정 아래서 한탄강으로 유입된다.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사이에 있는 대교천의 깊고 좁은 현무암 협곡은 2004년 2월 23일 천연기념물 제436호로 지정되었고 한반도 제4기 지질발달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학술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영평천(永平川)은 포천 이동면 도평리에 위치한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포천 시내를 관통해 양문리에 이르러 포천천에 합류한 후 41km를 흘러 아우라지에서 한탄강과 합류된다. 차탄천(車灘川)은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리에서 발원하여 연천군청 소재지인 차탄리 한복판을 북쪽에서 휘감아 돌면서 남동쪽의 은대리 평원을 흐르다가 전곡읍 삼형제 바위에서 한탄강에 유입된다.

▶ 한탄강의 생태계



바위틈에서 자라는 한탄강 돌단풍

DMZ와 한탄강은 철원군의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다. 한탄강은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용암대지가 급격히 깎여나가서 형성된 강이라 수직절벽과 협곡이 발달했다. 사람들 접근이 어렵다보니 자연환경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한탄강 유역은 야생화의 천국이다. 한탄강 협곡 주상절리나 현무암 틈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돌단풍, 시커먼 바위 위에서 자태를 뽐내는 쯤바위솔,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삼지구엽초, 붉은 색 병꽃나무, 화강암 주변에 많은 철쭉 등이 대표적인 식물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철원 한탄강을 상징하는 대표식물은 돌단풍이다. 돌단풍은 잎이 단풍잎 같고 주로 수직절벽과 돌 틈에 서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해마다 철원평야에 추수가 끝나면 겨울을 나기위해 어김없이 두루미와 쇠기러기가 찾아온다. 특히 무병장수와 행운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는 한탄강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한탄강에 서식하는 고유 물고기종은 어름치와 묵납자루를 비롯해 줄납자루, 쉬리, 참중고기, 중고기, 가는돌고기, 긴물개, 돌마자, 배가사리, 돌상어, 새코미꾸리, 참종개, 통가리, 눈동자개, 꺾지 등 16종이다. 이것은 총 49종의 한반도 고유종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

▶ 한탄강 래프팅과 얼음트레킹

한탄강 절경을 짧은 시간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래프팅과 트레킹이다. 한여름 5~10명이 한 팀이 돼 즐기는 래프팅은 승일교~굴바위~고석정~순담~군탄교 구간에서



한탄강협곡을 가르는 래프팅

주로 행해지며 기암절벽 사이의 빠른 물살을 가르는 스릴을 즐기면서 주상절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레포츠다. 함께 도전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리에 완주했을 때 느껴지는 동료애는 래프팅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남한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철원의 한탄강은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는다. 해마다 1월 중순이면 한탄강 얼음판 위를 걸으며 직접 현무암 주상절리와 화강암 기암괴석들을 만져볼 수

있다. 래프팅과 달리 얼음트레킹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아무 곳이나 머물며 휴식할 수 있어 매력이 크다. 접근이 쉽고 가장 안전한 구간인 직탕~태봉대교~송대소~마당바위~승일교~고석정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승일교와 직탕 구간 한탄강 양옆으로는 탐방로가 나있어 4계절 트레킹이 가능하다. 한탄강의 서쪽 탐방로인 한여울길은 포장되어 있어 자전거를 즐기는 관광객들도 많다. 한탄강 동쪽 탐방로는 강변 산속 숲길에 만들어진 생태탐방로로 가벼운 등산을 하며 한탄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한탄강 탐방로는 태봉대교와 승일교를 통해 강을 건너 순환하는 코스이므로 어느 곳에서나 출발 및 종료가 가능하다.

▶ 한탄강의 주요 관광지



얼음이 꽁꽁 언 고석정 고석바위

철원 한탄강에서 유명한 관광지를 상류에서부터 소개하면 정자연(亭子淵), 칠만암(七萬巖), 직탕(直湯), 송대소(松臺沼), 한반도지형(마당바위), 승일교(承日橋), 고석정(孤石亭), 순담계곡 등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뛰어난 경치와 지질학적 가치를 자랑하는 명승지는 여러 군데가 더 있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정연리 삼합교, 당구미 합수지, 이길리 철새관찰소, 양지리 양수장, 양지리 주상절

리, 동막리 외동교, 동막리 화강암대, 강회동 주상절리, 금월동 현무암대, 무당소, 태봉대교, 장흥리 주상절리, 굴바위, 대교천 현무암협곡, 양합소, 샘소, 군탄리 주상절리, 너른 바위, 동온동 합수지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전방지역이거나 군사보호구역이라 출입이 통제되는 곳도 있다. 한탄강은 평야 한가운데가 움푹 파인 협곡으로 이뤄졌고 절벽이 가파르기 때문에 강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곳이 많다. 다만 예전에 우물이나 상수도가 없는 마을은 식수나 생활용수를 한탄강에서 해결해야 했기에 강으

로 내려갈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들었다. 이런 길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인적이 끊기면서 이젠 거의 사라졌다.

▶ 정자연(亭子淵)



한탄강 최상류에 위치한 정자연

정자연(亭子淵)은 남한지역 한탄강의 최상류 남방한계선 바로 밑에 위치한다. 정자연이 있는 정연리는 6.25전쟁 전 평강군이었으나 전쟁 후 철원군에 편입되었고 현재는 군 초소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정연은 고려시대부터 철원·평강지역에 세거하며 번창해온 창원 향 씨 농원이 있던 곳으로 조선 광해군 때 강원감사를 지냈던 월탄(月灘) 황근중(1560~1633)에 의해 유명해지게 된다. 그는 인조반정으로 관찰사를 그만두게 되자 고향에 내려와 한탄강이

내려다보이는 현무암 절벽 위에 8칸 규모의 창랑정(滄浪亭)이란 정자를 세웠다. 정자 이름은 굴원의 「어부사(漁父詞)」 가운데 “창랑의 물 맑으면 내 갯끈을 빨 것이고, 창랑의 물 흐리면 내 발 씻으리로다.”라는 곧은 절개를 표현한 문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는 정자 주변 절경 8곳을 선정해 정연 8경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곳이 금강산 가는 길목이라 문인들이 운집하는 명소가 되어 자연스레 ‘정연’ 또는 ‘정자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창랑정이 복원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고대하고 있다. 조선의 3대 화가이자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謙齋) 정선(鄭敼)(1676~1759)도 금강산 가던 길에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려 ‘정자연도’를 남겼다. 정자연 한탄강에는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금강산전기철도의 교량인 정연철교가 앙상하게 남아있어 분단의 아픔이 저절로 느껴진다.

▶ 칠만암(七萬巖)



칠만암(七萬巖)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에 위치한 칠만암(七萬巖)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수만 개의 기암괴석이 기기묘묘한 조화를 이뤄 그리 이름 붙여졌다. 울창한 수림과 옥수같이 맑은 물이 어우러져 예로부터 소풍지와 천렵장소로 유명하다. 다만 전방지역에 위치해 외지 관광객보다 철원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한탄강 상류의 모습이 원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외지인들이 보면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이곳은 조선 광해군 때 철원 출신 명장인 충무공 김응하(金應河) 장군이 청년시절 무과에 급제하기 전에 무예를 닦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는 김응하 장군이 아끼는 말에게 “내가 쏜 화살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화살이 떨어지는 지점에 달려가 입으로 화살을 받으라.”고 이른 후 “만일 내가 쏜 화살을 받지 못하면 너는 단칼에 목이 날아갈 것이다.” 하고 화살을 쏘고 말을 달렸다. 이때 말이 달리다가 멈춘 곳이 칠만암인데 멈춘 말을 보니 화살이 물려있지 않자 화살보다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고 단칼에 목을 베었다. 그런데 말이 쓰러지는 순간 그 때서야 화살이 날아와 쓰러진 말 엉덩이에 꽂혔다는 전설과 함께 그때 세차게 달려와 멈췄던 말발굽 자리가 바위 위에 남아 있다고 한다.

▶ 직탕(直湯)폭포



직탕(直湯)폭포

직탕폭포는 70~80m 폭의 한탄강 주상절리를 강물로 커튼처럼 가린 채 3~4m 높이에서 떨어진다. 강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여울이라서 직탄(直灘)으로 이름 붙여졌고 나중에 직탕(直湯)으로 바뀌었다. 강 양쪽으로 야트막한 주상절리가 펼쳐지고 시커멓고 구멍 뿜뿜 뚫린 현무암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운치를 더한다. 주상절리의 형성과 변모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곳을 둘러봐야 한다. 직탕폭포는 살아 움직

이는 폭포라고도 말한다. 왜냐하면 강물이 떨어지면서 강바닥 주상절리가 자꾸 깎여나가 폭포가 상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부침식이라 하는데 인근의 비둘기낭이나 재인폭포가 똑같은 경우이다. 예로부터 직탕폭포 밑에는 폭포를 뛰어넘지 못하는 고기들이 많아 고기 반 물 반이라는 속설이 있고 낚시꾼들도 많이 몰린다. 중국 황하의 많은 물고기 중 상류의 급류를 뛰어 넘어야만 용이 된다는 고사가 전하는 등용문(登龍門)이 연상된다. 직탕폭포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강바닥에 질펀하게 깔린 현무암과 화강암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곳이 화산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느껴진다.

▶ 송대소(松臺沼)

송대소(松臺沼)는 한탄강 특성이 가장 집약된 곳이다. 현무암 기암절벽이 결대로 떨어져나간 송대소 주상절리(柱狀節理)는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멋지다. 절벽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층계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는 침식현상, 절벽 밑에 쌓인 현무암 돌 더미, 그 옆에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모래사장, 그리고 그곳에서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 오리



주상절리가 가장 아름다운 송대소

“송대소(松臺沼)”라고도 한다. 송대소는 물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래되는 이야기로는 명주실 한 타래가 다 풀려 들어갈 정도로 깊다고 한다. 실제로 수심이 20~30m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

때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한다. 무엇보다도 높이 30m 위용을 자랑하는 수직적벽(垂直赤壁)과 그 절벽 높이보다 더 깊어 보이는 비취색 한탄강 물의 조화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옛 기록에 “邑東南浦邊石壁圍 一面下有蒼蒼深淵”이라 기록되어 있는 송도포는 전설에 따르면 옛날 송도(개성)사람 3형제가 여기 와서 두 사람은 이무기에 물려죽고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이무기를 잡았다고 하여 “송도포(松都浦)”라 불리게 되었고 이를 일명

▶ 한반도지형(마당바위)



한반도지형

연결해 놓은 듯 하기도하다. 남해안지역 모습은 강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이 수많은 섬을 대신하고 있다. 마당바위는 50~60년대에만 해도 그냥 빨래터라고 불려왔으며 최근 철원출신 누드사진 작가인 정운봉(88세) 씨가 그의 누드사진집에서 마당바위로 소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 불리게 되었다.

송대소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기기묘묘한 형태의 거대한 화강암들이 즐비하게 깔려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강 물줄기와 절벽 윤곽 그리고 바닥의 화강암과 현무암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한반도지형이다. 전망대에서 한탄강을 내려다보면 한반도 지도가 짝 펼쳐져 있다. 강물이 굽이쳐 내려가는 모양이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서해안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의 모래언덕이 위치하고 태안반도 부분에 커다란 ‘마당바위’가 있다. 동해안쪽으로는 기암절벽이 있고 해안선을 따라 검은 현무암이 수북하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자연적으로 가르는 추가령 구조곡은 마치 미니어처를 제작해 놓은 것처럼 화강암들이 띠를 이루며 깔려있다. 어찌 보면 마치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역(DMZ)을 동서로 길게

▶ 승일교(承日橋)



남과 북이 반반 놓은 승일교

만 절반도 놓지 못한 상태에서 6.25전쟁이 발발해 공사는 중단되었다. 중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1952년 4월 미군 공병대가 승일교 보강공사에 투입되어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했다. 미군이 주도한 승일교 공사에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철원 땅에 남아있던 KSC 노무부대원들도 투입되었다. 남북합작의 공사과정을 알고 있는 철원주민들은 그때부터 남한 이승만 대통령의 “승(承)”자와 북한 김일성의 “일(日)”자를 따서 승일교(承日橋)라 부르기 시작했다. 승일교는 체제를 달리하는 주체들이 자기를 필요에 의해 건설했다. 전면남침 적화통일을 위해 공산정부에서 공사가 시작된 다리를 반대편 적의 입장이던 미군들이 북진통일을 위해 완공했다.

▶ 고석정(孤石亭)



고석정(孤石亭)

한 최초 기록인 고려시대 승려 무외(無畏)의 「고석정기(孤石亭記)」를 보면 “철원군 남쪽으로 만여 보를 가면 신선(神仙)의 구역이 있는데 고석정이라 한다. 그 정자는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일어나 높이가 3백 척 가량 되고 주위가 10여장(丈) 쯤 된다.(중

승일교는 한탄강 협곡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콘크리트 다리이다. 해방 전후와 6.25전쟁 전후의 기구한 역사적 운명을 간직한 철원군만큼이나 승일교 건설 과정도 드라마틱하다. 승일교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다리모양이 다르다. 이는 다리를 놓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승일교 공사는 1948년 8월 공산치하에서 남침교두보 확보를 위해 시작되었다. 다리공사에는 철원과 김화지역 주민들이 노력공작대란 명목아래 동원되었다. 하지

고석정(孤石亭)은 이름만 놓고 보면 정자만을 뜻하나 통상적으로 강 한가운데 20m 높이로 우뚝 솟은 커다란 화강암 바위와 그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 군락을 말한다. 그리고 고석정은 옛 고(古)도 아니고 높을 고(高)도 아닌 홀로 고(孤)이다. 이는 27만 년 동안 한탄강을 외롭게 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석정이란 이름은 신라 진평왕이 철원지역을 순회하다가 이곳에 들러 지었다고 전해진다. 고석정에 대

락)”라고 신선의 구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석정에는 고려 충숙왕과 조선조 태종·세종·문종 등 역대 왕들이 자주 들렀다고 전한다. 한편 고석정에는 임꺽정 관련 전설이 전하는데 임꺽정이 관군에 쫓겨 고석바위 안 석굴로 대피하였고 수시로 꺾지로 둔갑해 한탄강에 몸을 숨겼다는 내용이다. 고석정은 철원군 관광의 중심지이다. 한탄강을 비롯한 명승지 관광이나 전방지역 DMZ 안보관광 등 모두 이곳에서 시작된다. 고석정 일대는 여름철 한탄강 래프팅과 캠핑 장소로 유명하고, 겨울철이면 두루미 탐조여행과 얼음트레킹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 순담계곡



래프팅이 한창인 순담(尊潭)계곡

순담계곡은 한탄강 바닥과 양쪽 절벽에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이 웅장하게 깔려있고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한탄강은 현무암이 많은데 이곳은 유독 뾰얀 화강암들이 많이 분포한다. 굴곡이 심하고 물살이 빠르며 화강암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래프팅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승일교에서 출발한 래프팅 배들의 중간기착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곳에서 출발한 래프팅 배들은 샘소를 거쳐 군탄교까지 내려가게 된다.

순담계곡은 갈말지역 주민들의 단골 천렵장소이자 그곳 학생들에게는 소풍장소로도 유명하다. 순담계곡은 한자로 尊潭 혹은 純潭이라 쓴다. 전자는 순채(尊菜) 순(尊) 자로 순채가 자라는 연못이 있어 지어진 이름인데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자란 순채(尊菜)가 왕실용 약초로 이용됐다고 전한다. 후자는 조선 순조 때 우의정을 지낸 김관주(金觀柱)가 관직을 박탈당한 후 몸이 쇠약해지자 이곳에서 요양하며 순담(純潭)이라는 연못을 만들어 그리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순담계곡 옆에는 교파를 초월해 연인원 10만 명이 이용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목사 등 500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대한수도원이 있다.